



경기방송 노동자 지위 사수! 부당해고 반대!

-소수 주주들에 의해 일방 해고된 경기방송 노동자들
-먹튀방송사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만들어야.

FM 99.9MHz는 내동댕이쳐졌습니다.

1,300만 경기도민의 방송은, 경기도민의 청취권은 사라졌습니다.

철저히 묵살한 사측은, 방송법을 핑계삼아 일방적으로 방송 송출을 멈췄습니다.

3월 30일 0시부터 FM 99.9MHz는 침묵을 지켰고, 방송 종사자들에게는 오늘(7일) 해고 통보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사측은 여기에 더해 노동조합 사무실도 폐쇄하겠다고 하며 방송 종사자들의 단결권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인 조합의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공공재인 FM 99.9MHz가 주식회사의 논리를 내세우는 소수의 주주에 의해 침탈되고, 이를 지적하는 일부 구성원들에 철폐가 가해질 때, 한 목소리를 내고 막아내지 못한 것이 우리들 내부 구성원들의 원죄임을 자각하고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FM 99.9MHz가 사회적 공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부 노동자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더 이상 방송법의 공백을 악용하여 언론의 자유, 방송의 공익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민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방송, 소수 주주들의 전유물이 아닌 어엿한 경기도민의 공공재로서의 방송을 만들어 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경기도민의 방송인 경기방송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사수하겠습니다.

경기방송 노동자들은 오늘자로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경기지역 청취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한 걸음 한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근로자의 단결권 사수를 위해 경기방송 노동조합 사무실을 사수해 내겠습니다.

첫 발걸음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어디부터 디더야 할지 암담합니다.

살얼음판을 디디는 건 아닌지, 날카로운 가시밭길에 놓이는 건 아닌지.

하지만 용기를 내겠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해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여서, FM 99.9 MHz의 열혈 청취자들과 경기도민들이 함께여서 든든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호소합니다.

떡튀 방송사업자를 막을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만들어주십시오.

재허가를 해달라고 간청할 땐 언제고, 재허가 서류에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방송사업을 반납하는 사업자라니요? 지역 방송의 존재 이유, 경기도민의 청취권 보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방송사업자에게는 철퇴를 내릴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들어주십시오.

2020. 5. 7.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방송지부

